

# 주체성과 자신감 일깨워준 희망의 책

말레이시아관광청 홍보과장 성연아씨가 뽑은 구본형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외국관광청 사무소답게 말간 유리창 안으로 전통의상을 입은 이국 여인의 사진이 비친다. 가까이 다가가니 옛, 영화나 모형으로만 본 씨클로가 있다. 성연아씨(31, 말레이시아관광청 홍보과장)가 일하는 사무실은 그렇게 장식품은 물론 화초까지 낱설었다.

외국에 있는 듯한 생경한 기분도 잠시,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구본형, 김영사)의 표지가 보이자 이내 살던 곳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그런데 차분한 성연아씨의 책소개를 듣자니 이런, 또 판세상에 있는 것 같다.

이 책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자기혁명의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상사에 기대거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고용해 가치있는 '개인 브랜드'로 만들라고 권고한다. 지은이는 "자신의 내부에서 '직장인임을 죽임'으로써 '전문적 1인 기업가'로 환생하려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썼다"고 한다.

"서점에서 책 앞머리를 읽고 '아, 내 얘기구나' 싶어 선뜻 골라 들었어요. 힘든 회사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말은 잊고 있던 주체성과 자신감을 일깨웠죠."

바쁜 일과 속에서 힘들고 회의가 들 때 한구절씩 생각한다고 한다. 책 읽을 때는 '맞아,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몰아치듯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실천은 늘 '다음 기회에'가 된다. 하지만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으며, '그래, 이런 것도 있는데' 하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



"힘든 회사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말은 잊고 있던 주체성과 자신감을 일깨웠죠."

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책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성공과 부를 목적으로 여기지만, 실은 그것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성공과 부는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얻는 부산물이라는 말이지요. 이 책은 진정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사회활동을 하든, 집안일에 힘쓰든 의욕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답을 준다. 특히 직장에서 도태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전업주부의 처지가 비판적일 때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물론 모든 전업주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성향과 욕구가 전업주부에 잘 맞는데 주위의 과소평가에 휘둘려 자신감을 잃은 사람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차정신 기자

www.hakjisa.co.kr www.eNonmun.com

## “당신의 유능한 상담자가 되고자 합니다”



▼  
▼  
▼  
학지사는 당신의 유능한 상담자가 되고자 합니다.  
당신이 상처받고 힘들어 할 때  
그 마음을 치유해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상담자가 되고 싶습니다.



“도서출판 학지사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열어갑니다.”

-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 · 유능한 상담자 · 상담의 기술
- 칼로저스의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 애들러 상담이론

도서출판 **학지사** 120-193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 3동 187-10 혜전빌딩 2층 전화:(02)363-1333 팩스:(02) 365-1333